



## Dentate maxillectomy patient

장문숙\*, 송광엽, 박주미 |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편평상피세포암은 구강점막 상피에서 유래되어 결체조직으로 침투하는 구강영역 악성종양으로, 그 중 구개암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흔하진 않으나, 경구개에 발생하여 골을 침범한 경우에는 부분상악골절제(partial maxillectomy)를 시행한다.

상악 결손의 정도에 따라 환자 안모 변화, 고비음, 이상한 발음, 연하 곤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결손 형태에 맞는 hollow obturator를 제작한다.

1978년 Aramany는 부분상악골절제술을 받는 환자의 metal framework design을 위해 6개의 분류로 나누어 체계화 하였고,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.

본 증례는 상악 편평상피세포암으로 부분상악골절제술을 받아 Aramany 분류 2급에 해당하는 환자로, 국소의치와 obturator의 설계 원리에 따라 제작하여 치료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